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 '순항'

순창군, 총 85억원 들여 가족 체류형 거처 마련

순창군이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은 순창으로 농촌유학을 선택한 가족들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최근 농촌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농촌 유학 확대를 위해 나섰다. 농촌 유학 신청자들 사이에서 거주 시설 노후화와 미흡한 인프라 문제로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을 명

실상부 농촌 유학 중심지로 급부상시켜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삼고자 관내 모든 면 단위 지역에 농촌 유학 주거시설 건립을 목표로 지속해서 사업부지 및 예산 확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현재 인계면, 팔덕면, 적성면 등 총 3곳에 거주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인계면과 팔덕면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성면은 내년 12월까지 완공해 지역 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농촌 유학을 온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관내 곳곳의 공공 및 유희 시설을 이용해 농촌유학 거주시설 활용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빈집과

개인 주택 등 소규모 거주시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촌유학 거주시설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가정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유학을 선택하는 가정에게 순창군이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방소멸 위기를 적극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과 인천, 수도권 등에서 41여명의 초등학교생이 농촌 유학에 참여 중이며, 현재 가족 포함 84명이 순창에서 생활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밀 예찰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

임실,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정밀 예찰

작업 도구 등 농자재 수시 소독으로 과원 청결 관리 강조

임실군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밀 예찰을 오는 14일까지 사과·배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 식물의 잎·꽃·과일·가지 등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식물 조직이 검게 말라 고사한다.

부위별 주요증상으로는 줄기 선단부터 시들기 시작하며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잎은 수침상의 흑갈색 병반이 나타나고 엽맥을 따라 병반이 진전되기도 하며 잎이 시들고 적·흑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열매는 주로 과경에 접하는 부위부터 수침 증상이 나타나고 점차 흑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화상병은 발생 시 과수원을 폐원하고 발생 과원 내 거주시설(자두, 살구, 복숭아 등) 재배를 2년간 제한하는 국가감염병해충으로 병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군은 화상병 균의 활동 개시 온도가

도래함에 따라 5월 1차 예찰을 시작으로 6월, 7월, 10월까지 총 4회의 집중 발생 조사를 통해 지역 내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 지원(개화기 전후 3회분), 리플릿 제공, 현수막 게시, 농작업일지 작성 홍보, 과원 상시 예찰 등 화상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작업자 준수 사항으로는 △농작업자·농기자재 철거한 소독 실시 △70% 알코올 또는 차이염소산나트륨 0.2%가 함유된 락스 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해 수시 소독 △과수 재배 전 기간 자가 예찰 실시 및 의심주 발생 시 즉시 신고 (1833-8572) △전정 작업 등 외부 작업 단 이용 시 외부 도구는 사용치 않도록 하고, 과수원 경작자가 전용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작업 도구 등의 철저한 소독과 과수원 청결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춘향제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거리홍보·결의문 작성 등

남원시는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지역축제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적극적 나서고 있다.

바가지요금은 소비를 줄이고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결국 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축제나 재래시장 등에서 벌어진 도를 넘는 바가지요금 사태가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어 이 지역은 국민들 질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에 남원시는 춘향제 기간 바가지요금 행태를 막고자 축제 이전에 지역상인들의 의식 고취를 위해 남원 수퍼마켓사업 협동조합(이사장 전재완)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거리홍보, 결의문 작성을 실시했다.

또한 춘향제 기간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상환근무



남원시는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지역축제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가 수시로 바가지요금 행태가 벌어지는 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가격공시제를 운영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위반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판매하

는 상인에게 부스를 철거하는 등의 강도 높은 불이익을 부여, 착한 가격 촉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문화원,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열려

임실문화원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군민과 문화원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비밀'의 작가이자 전 국립국악원장을 역임한 한명희 선생을 초청해 '홍익 이념과 신바람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중 10여 곳을 선정해 원로 예술인

들의 삶의 지혜와 예술 이야기를 강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임실문화원이 선정됐다.

한명희 선생은 강연에서 "우리 민족은 예부터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형성된 공동체 문화를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함께 어울리고 흥겹게 노는 신바람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며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해 강연했

다.

임실문화원 박정우 관한대장은 "올해 임실문화원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특별강연회도 이런 취지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임실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학연구를 비롯한 임실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임실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부담금 없이 발급

순창군이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을 시작하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여가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 자부담 금액 2만원을 군비로 지원, 15만원의 바우처를 전액 자부담없이 제공해 여성농업인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군은 지난 2월 말까지 생생카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총 2,510명에 대해 발급을 확정하고, 읍·면 및 농협에 통보했으며, 아직 신청하지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카드발급은 농가에서 신청한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 및 유희, 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아동 보호구역 지정 학교·도시공원 등 34개소

남원시는 지난 10일,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34개소를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구역이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남원시는 그동안 아동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신청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정 협의의 마치고 △어린이집(8) △초등학교(11) △도시공원(14) △육아종합지원센터(1) 총 34개소를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남원시는 해당 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해 실시간 관제할 계획이며, 아동 안전 보호인력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순찰 강화 등으로 아동 범죄예방 및 아동의 안전·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춘향제 교통종합안내

남원시는 춘향제 기간 행사장 주변을 교통 통제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춘향제를 즐길 수 있도록 공영·임시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장 주변은 시설물 설치·철거 기간을 포함하여 오는 18일까지 차량이 통제되며, 승사교~춘향교 및 광장주차장~어린이과학관 구간은 전면통제가 이루어지며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근 골목길은 부분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료 셔틀버스는 11일, 12일,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남원스포츠타운을 출발, 부영5차를 경유해 지산어린이집 방면, 남원역을 출발, 메카센터를 경유 향교동복지센터로 방면의 총 2개 노선이 운영되며, 식사 시간인 오후 12~1시, 오후 7~8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